"시민과 함께 제2혁신도시 유치"

정헌율 익산시장, "범시민추진단 구성… 전북도·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제2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제2혁신도시 유치에 시민 역량을 결집해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익산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2혁신도시 유치는 필수적이다"며"이를 위해 이제는 행정과 시민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고 전했다.

특히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1일 김수흥 국회의원이 주관하는'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 성공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도 행정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전북도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항이며 시는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유치추진단 구성과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부터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온 만큼 후속 처리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주민과의 대화가 오는 20일 영등1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며 "건의사항 하나하나가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전 부서는 후속 처리를 적극 이행해달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관광 시즌을 맞아 지역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3년연속 매니페스트 공약이행 최고등급 'SA' 달성…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 결과

익산시가 시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3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평가받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 결과 SA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80여일간 225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모니터링하여 분석한 1차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소명자료 2차 평가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다.

평가항목은 △갖춤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Fail)를 평가항목으로 4대 지표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며 시는 총점 9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7대 비전 92개 사업 공약을 100%로 실천하기 위한 성공적인 순항을 시작했다.

공약 수립부터 소통과 공감의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공약사업을 검토,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40명의 시민배심원을 구성, 민선8기 공약실천 계획수립 상황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공약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기초를 다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힘입어 시정 목표와 비전을 담은 모든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한 92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공약사업 점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지속 운영 등 책임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미래농업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추진

군산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을 농촌에 유입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78명(청년창업농 158명, 전북형 청년창업농 20명)을 선발해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등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선정 인원 중 약 90%가 영농 정착에 성공한 효과를 거둔만큼, 매해 (예비)청년농업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연리 1.5%), 분할상환조건(5년 거치 20년)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임차료 50% 지원, 자금대출의 이자 1% 지원, 청년농업인들간 동아리 모임을 통한 교류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청년 목소리를 담는 소통·참여 시스템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물꼬를 튼다.

"청년의 꿈과 도전 뒷받침할 것"

익산시, 청년정책참여 물꼬… 청년희망네트워크 스타트

익산시가 청년 목소리를 담는 소통·참여 시스템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물꼬를 튼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직접 참여로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의견 개진으로 더욱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는 익산청년시청에서 '희망찬 도시, 즐겨라 청년!'이라는 비전으로 제3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네트워크 위원들의 단합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팀빌딩 레크레이션, 분과별 모임이 이루어졌다.

청년희망 네트워크는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다.

그동안 청년희망 네트워크에는 2019년 첫해부터 총 88명의 청년이 참여하며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 제안사업을 정책화했다.

시는 제3기 청년희망 네트워크 참여자를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 활동가, 대학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 40명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일자리 △교육·복지 △소통·문화 △농업 총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청년 문제 발굴 및 조사, 청년단체 간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 맞춤형 시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생각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소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위기청소년에게 가정을 대신해 줄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문을 열었다.

가정력이 약한 위기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가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하고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범 1호 처분(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6개월(연장 가능)동안 주거 및 학업, 자립 등 가정을 대신할 생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청소년 정원 8명으로 숙소와 거실 등의 시설로 꾸몄다. 바자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신고 수리를 통해 운영한다.

청소년들은 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사회심리재활 또는 교육 및 직업재활사업 등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보호서비스는 물론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도내에는 소년범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민간 보호시설이 없어 타지역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남자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룹홈은 전주에 몇 개의 기관이 있지만 여성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이나 시설 또한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개소로 여성 위기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2022회계 연도 결산검사 돌입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가 지난 13일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과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위촉하였다.

결산 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장에게 제출하면, 시는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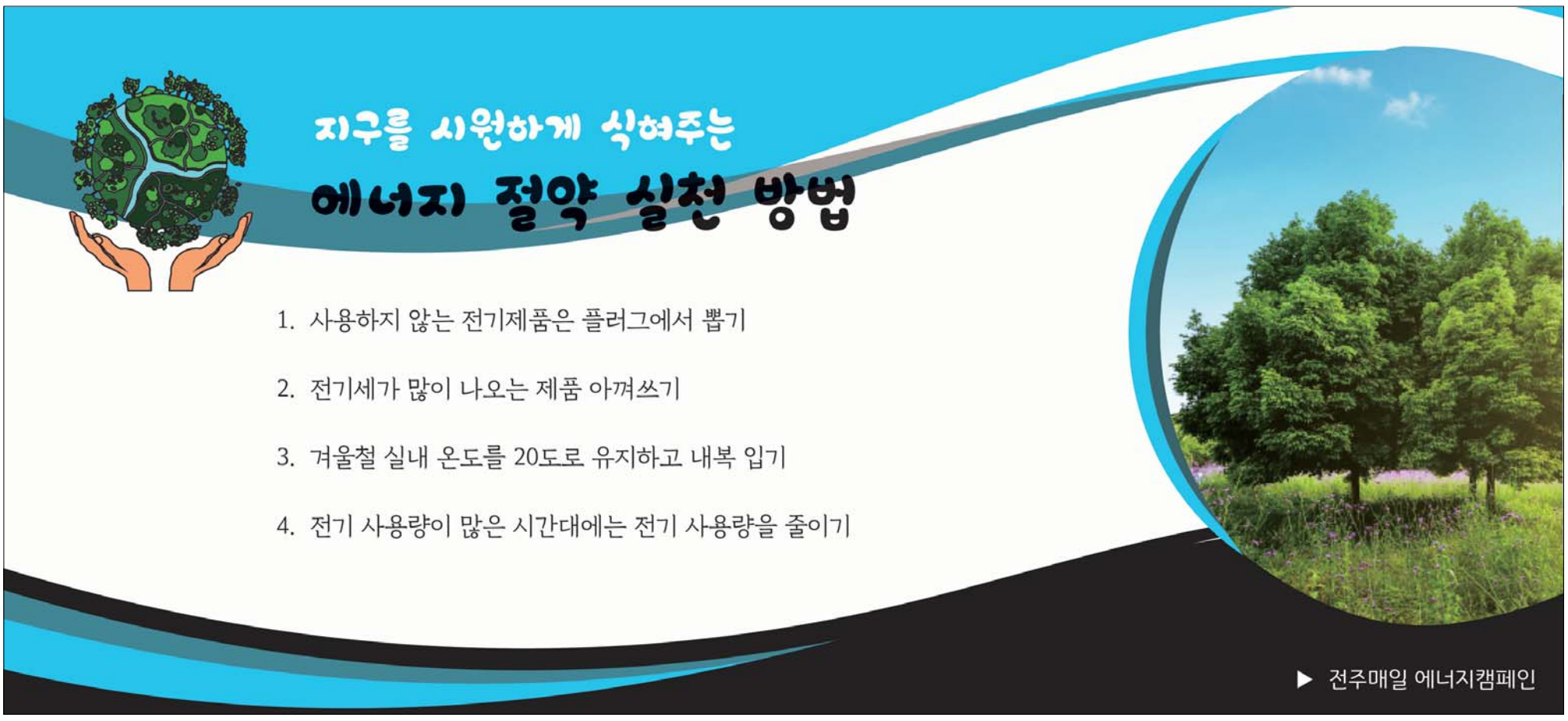
한경봉 대표위원은 "제9대 의회 들어 첫 결산검사로, 앞으로의 시정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2023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추진

군산시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생생마을 만들기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군산시 관내 3개 마을에서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고, 자발적·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며 과소화 마을의 주민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단계로,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마을이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옥구읍 옥정마을, 서마산마을, 서수면 하금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당 1,000만원 규모로 돌담쌓기, 담장벽화, 바람개비 설치, 화단조성 등 마을 특성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기자